

쌀 이야기

아침저녁 불어오는 바람이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일몰 시각도 점점 빨라지는 등,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벼 이삭이 여우는 것은 가을이지만, 최근 몇 년은 7 월부터 벼 수확을 시작하는 지역도 많은 듯합니다. 이번 달은 일본인의 주식이라 불리는 ‘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일본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언제쯤?

중국 대륙에서 시작한 벼농사는, 대륙과 한반도를 거쳐 약 3000 년 전에 규슈 북부 지방에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내에 퍼져, 이전까지의 수렵사회로부터 쌀을 공동으로 만들어 생활하는 농경사회로 변화해갔습니다.

○ 그 후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4 세기부터 6 세기에는 큰 고분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방대한 노동력과 식재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의 권력자는 많은 노동력을 모아 땅을 개간하고 논을 넓혀 쌀을 만들었습니다. 8 세기 초에 쌀은 세금으로써 징수되면서,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에도시대의 쌀의 역할은

도쿠가와 막부는 쌀을 경제의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쌀의 수확량이 무사의 계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많은 농민은 세금으로써 쌀을 납부해야만 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쌀을 충분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배불리 쌀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동경은, 일본이 제 2 차 세계 대전 후에 경제 성장을 이룰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 일본의 식문화

봄에 심어져 가을에 수확되는 쌀은, 떡과 술로 만들어져 신사의 신에게 바쳐집니다. 1 월 1 일에는, 떡이 들어간 ‘雑煮(조니)’를 먹으면서 사케를 마십니다. 일식의 기본 형식은 밥과 국, 반찬 3 종류를 어우른 ‘一汁三菜(국 하나에 세 가지 반찬)’이지만, 다국적 요리가 확산을 보이는 현대에도 ‘밥과 반찬과 미소시루 등의 국’을 먹는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쌀은 예로부터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일본인에게 있어 중요한 존재가 되어 왔습니다. 매년 쌀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의 식문화를 다시 보며, 오늘 저녁으로 갖 지은 따끈따끈한 쌀밥은 어떤가요?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

※일본어 번역은 후일,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